ISSN 1599-7863

박물관 사람들

2011년 봄 33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本所賜宴圖, 『기사경회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조시대 그림으로 궁중의 행사장면이 담겨있다. 현장감과 풍속화적 요소가 엿보인다.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여인들의 춤과 처용무가 진행되고 있다. 붉은 처용탈이 인상적이다.

Contents

기획_ 탈 04 탈

08 인생의 희여곡절을 담은 열두

문화칼럼 13 '더 나은 삶'의 정치,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선비들의 문화사랑 16 하루가 짧여 일흘이 된다

답사기 18 나를 부르는 보르부드르

회원마당 21 꿈을 꾸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24 진열장 속의 내 반지

학술상 27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

인터뷰 32 김영나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 소식 33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박물관 둘러보기 34 '미르못'의 봄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탈

이스름과 함께 축제를 알리는 풍악소리가 들린다. 점점 커지는 퉁소·장·북장단에 구경꾼의 어깨가 들썩인다. 무르익은 분위기를 타고 마당놀이가 시작된다. 한마당 한마당 저마다 다른 모습의 탈을 쓰고,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양반탈을 쓴 사람은 양반이 되고 각시탈을 쓴 사람은 각시가 된다. 관객들은 양반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는 발뚝이의 입담에 맞장구를 치고, 영감에게 맞아 허무하게 죽은 미얄할미가 한없이 가엾다. 탈을 쓴 사람과 보는 사람은 어느새 동화되어 놀이판은 흥이 오를 대로 오른다. 함께 어울려 신명을 풀어낸다.

탈(假面)은 얼굴을 가리려고 나무·종이·흙 등으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토속적·연극적 가면을 뜻하며 얼굴 안면을 가린다. 假頭라 하여 머리 전체 후두부까지 가리기도 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처럼 은폐의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 '아는 게 탈'이란 말도 있고, 배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잘못되어도 '탈났다' 한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선인들은 탈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당집에 두었다. 탈놀이가 끝나면 대부분 갖가지 액살이 붙었다고 불에 대워 없애버렸다.

탈을 사용한 것은 원시시대부터라고 추정된다. 주술적 목적에서 점차 종교적 의식으로, 제의로 쓰였다. 세시풍속이나 관혼상제 때 병행되었던 농경의례나 喪葬禮 그리고 민간놀이 등에서 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탈의 형상도 귀면형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儺禮는 역귀를 쫓기 위한 의식으로 그때 사용된 가면들은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처용이나 方相氏, 五方鬼舞, 사자 등의 탈을 착용했다. 『동국세시기』에 비단으로 신의 탈을 만들어 사당에 안치 해두고 숭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연말에는 신 내린 고을사람이 그 탈을 쓰고 돌아다니며 놀았고, 집집마다 그 신을 맞이해 즐겼다고 한다. 현존하는 탈 중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하회별신굿에서 사용하는 하회탈 [국보 제121호]이 있다. 한국인의 골격과 용모를 잘 표현하였으며 우리의 나무가면 중 걸작이다.

어깨는 솟고 목은 움찔, 머리카락은 오똑
온갖 한량 팔 비비며 술잔 다투는데
그 노랫소리 듣고 웃지 않는 이가 없네.
초저녁이건만 깃발은 새벽을 재촉하누나.

황금 탈을 썼다. 바로 그 사람.
방울채를 손에 쥐고 귀신을 쫓는구나.
몰아치다 풀어주는 한바탕 춤은
너울너울 봉황새가 날아드는 듯 하는구나.

– 신라5기 중 월전, 대면

『악학궤범』 처용그림

탈은 우리의 탈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연극과 달리 항상 탈을 써야하는 연희자에게 분신이나 다름없다. 축제나 연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최치원의 「鄕樂雜詠」 5首에 탈놀이를 멋지게 소개하고 있다. 다섯 가지 놀이란 뜻으로 '신라5기'라 하며 조선시대 오광대놀이에 영향을 미쳤다. 마치 눈앞에서 공연 하는 듯 생동감 있고 재미있다. 처음에는 금방울(金丸) 던지기로 시작한다. 이어 '월전(月顚)'인데 곱사등이춤으로 보이는 동작에는 구경꾼의 폭소가 터진다. 세 번째 놀이는 '대면(大面)'으로 이름처럼 커다란 황금탈을 쓰고 귀신 쫓는 춤을 춘다. 다음은 '속독(束毒)'으로 원앙춤을 추는데 쑥내머리 파란탈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산예(狻猊)', 사자춤이 시작된다.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의 춤사위는 그야말로 역동적이다. 오늘날 북청사자놀이와 봉산탈춤으로 이어진다.

조선의 처용무도 그 연원을 신라의 처용탈에서 찾을 수 있다. 궁에서 가무극으로 발전한 처용무는 조선말까지 궁중에서 추어왔다. 연희도나 단원의 〈평양감사 환영도〉에서 흥겨운 축사위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는 2인무였는데 세종 이후에 수정한 『악학궤범』에 5인무로 확대되었다. 처용탈을 쓴 춤꾼 5명이 청·홍·황·백·흑색의 탈복을 입고 한 줄로 서서 먼저 처용가를 부른다. 노래가 끝나고 붉은 가면의 처용이 춤을 추면 머리에 꽂은 꽃에서 향기가 퍼져나갔으리라.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산대도감에서 각종 공연을 맡아서 관리했다. 17세기 인조때 산대도감 놀이가 폐지되면서 관청의 지원을 받던 도감패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여러 집단,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산대잡희는 서민사회에 자생적으로 전승되어 온 탈놀이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기산의 〈풍속도〉에는 오늘의 탈놀이와 유사한 온갖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궁중의 연회와 다르게 갖가지 탈을 쓴 놀이패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춤 한판을 벌이고 있다.

우리 탈은 나무나 종이, 바가지로 만든다. 연희자 가운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소목장이 제작을 담당한다. 바가지탈은 잘 마른 바가지를 얼굴모양으로 잘라 눈과 입을 도려내고 짚 · 새끼 · 털 · 가죽 · 나뭇조각 등으로 눈썹과 코를 만든다. 매끈한 표면 때문에 평면적이다. 종이로 만들 때는 진흙으로 골을 떠서 그 위에 백지나 한지를 여러 겹 붙인 후 눈 · 코 · 입에 구멍을 내고 채색을 한 다음 눈썹, 수염을 붙인다. 코나 입 등 도드라진 부분을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나무는 깎고 뚫고 다듬는 까닭에 눈썹이나 주름살을 유연하고 세련되게 살려낼 수 있다. 하회탈의 양반이나 선비, 백정처럼 입체적이거나 턱이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나무 탈만의 장점이다.

현존하는 우리 탈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역시 인물탈이다. 대개 변형시키고 과장하여 표현이 강하다. 얼굴모양도 원형 · 역삼각형 · 말상 등 다양하다. 위로 찢진 눈, 처진 눈, 실눈, 짝짝이 눈, 안으로 몰린 눈 각양각색이다. 어디 눈 뿐이랴. 삐뚤어진 코, 입술을 덮은 큰 코, 또 언청이 샌님은 어찌 그리 많은지! 유이 다닥다닥한 얼굴, 큰 혹도 달렸다. 이렇게 과하거나 모자란 듯한 탈이 오히려 친근하고 정답게 느껴진다. 아마도 희로애락이 스며있는 얼굴이 우리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리라.

양반탈에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많다. 변변치 않은 그들의 행색으로 반반해진 것일까? 양반의 위엄과 권위는 사라지고 허세와 비대를 꼬아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양반에 대한 풍자는 하회별신굿의 초랭이에서 봉산탈춤이나 양주별산대의 말뚝이로 이어진다. 이는 민중의식의 성장을 반영한다. 동래들놀음의 말뚝이 탈은 우리나라 탈 중 가장 크다. 눈 · 코 · 입도 다른 탈보다 데어섯 배는 커 보인다. 너풀댄 것 같은 귀도 만만치 않다. 말뚝이의 그 모습만으로도 양반들은 지레 기가 눌릴 것 같다.

취발이는 무서울 게 없다. 노장에게서 소무를 빼앗고 양반에게 대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그지없다. 재미있는 특징 때문에 취발이의 모습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탈의 윗부분에서부터 한줄기의 긴 머리카락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늘어져있다. 지역과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취발이탈은 공통된 모습을 가진다. 노장 · 할미 · 샌님 · 소매탈 등도 일정한 인물 유형을 보여준다.

탈을 쓰면 나는 사라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된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대담해지기까지 한다. 초랭이 · 할미 · 말뚝이가 되어 꼭 눌렀던 것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잠재 되었던 무언가를 끌어내 줄 새로운 탈이 필요하지 않을까. 탈 공부를 하는 내내 입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말이다.

너는 신랑탈, 나는 각시탈
소맷자락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자락 휘감으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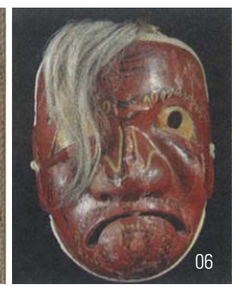
01 _ 송파산대놀이 연습장인 움막. 1973년
02 _ 기산 김준근 〈풍속도〉
03 _ 말뚝이. 동래들놀음
04 _ 취발이. 양주별산대놀이. 1929년 수집
05 _ 취발이. 현재 사용중인 양주별산대놀이
06 _ 취발이. 퇴계원산대놀이. 1920년 수집
07 _ 취발이. 봉산탈춤

01

02

04

05



06

07

인생의 우여곡절을 담은 얼굴

광대 하나가 얼굴에는 나무로 만든 귀신가면을 쓰고, 아내와 함께 한강 위에서 걸식했다. 얼음이 녹을 무렵의 봄에 그는 아내와 함께 강을 건널 때, 귀신가면을 벗지 않고 놀이를 하면서 갔다. 갑자기 아내가 물에 빠지니 광대가 비쳐 귀신가면을 벗지 못하고,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다. 그는 비록 슬피 통곡하는 것이나, 보는 사람은 소리내어 웃지 않은 이가 없었다.
– 유봉인, 반종재본 『어우야담』 61화

광대가 쓴 가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누가 보아도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 할 장면인데 왜 사람들은 남의 비극을 보며 웃는 것일까. 귀신 가면의 표정이 그렇게 희극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동작이 우스꽝스러운 것일까. 물에 빠진 사람을 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광대만의 특별한 제스처는 아닌데. 위급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보고 왜 사람들은 웃는 것인지. 광대라는 신분이 워낙 하찮아서 사람들의 동정보다는 웃음을 유발시키는 존재일까? 사람들은 재미있어하지만 광대는 가면 속에서 울고 있을 텐데.

흔히 한국의 탈에는 익살과 해학이 넘친다고 한다. 즉 눌러보아도 웃는 얼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통 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면 왁자한 시골 장터가 연상 될 정도이다. 과안대소하는 탈들, 보고만 있어도 절로 입이 벌어진다. 눈·코·입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안면에 억지스런 과장과 왜곡이 더해졌다.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각시탈도 그들과 섞여 있으면 웃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우리 전통 탈 중 해학미의 대표 주자를 꼽으라면 당연 하회별신굿 탈이다. 양반탈의 뭉겯치듯 휘어진 눈썹과 눈꼬리, 그리고 함박웃음을 떠뜨린 입모양이 인상적이다. 이들이 그리는 곡선은 부드럽고 푸근하다.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이 어우러진 웃음이 주는 파급력도 한몫 했으리라.

하회별신굿의 양반탈이 보여주는 선량한 눈웃음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 위에 쏟아졌을 백정이나 할미의 탈을 쓴 서민들의 야유와 조소 소리가 역겹지도 않았던가 싶은 느낌이 든다. 말하자면 반사에 대평스러운 한국인의 성정이 야유 받는 이 양반탈의 모습에도 잘 반영되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한 마을 사람들도 한번 탈을 얼굴에 덮어쓰게 되면 북소리 징소리에 저절로 신명이 솟구치게 되고, 감기야 말분이 더진 탈의 입은 양반이나 과세승에게 뉫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 최순우, 하회탈–양반의 눈웃음

사실 탈놀이에 등장하는 양반은 대부분 조롱의 대상이다. 현재 전해지는 탈놀이는 상업문화가 형성되던 조선 후기의 것이어서 재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관객인 서민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양반에게 무시당하며 산 세층들의 애환이 쏟아져 나온다. 온갖 비리와 위선이 놀이마당에서 폭로된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얼굴을 기형으로 만들어 놓은 탈이 많다.

입삐뚜루니·언청이·곰보·분상이 등, 온갖 방법으로 야유를 퍼부었다. 毛兩班이라하여 개나 고양이처럼 얼굴을 털로 장식한 것도 있다. 봉영오광대의 홍백양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얼굴색을 반씩 다르게 칠했다. 근본을 중요시하는 양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은 셈이다. 놀림을 당하느라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는지 은율탈춤의 세 양반은 얼굴에 흑이 솟아있다. 체통이 무너지니 양반은 영락없는 도깨비 꼴이다.

우리 탈에서 가장 신난 인물은 서민들의 대변인 말뚝이이다. 입이 귀에 걸린 봉래야류의 말뚝이를 보라. 어느 탈보다 얼굴이 훨씬 크다. 숯불이 이글거리듯 붉은 색을 칠해 넘치는 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봉황을 눈과 비정상적으로 큰 코는 양반이 갖지 못한 성적 자신감의 표출이 아닐까. 거기에 거침없는 재담이 더해진다. 지배계급의 권위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지위 高下나 僧俗의 구별이 없다. 小巫나 에시랑 뿐 아니라 양반집 어인을 유혹하고 또한 파계승과의 대결도 서슴치 않는다. 거친 말투로 양반을 질타하고 재판관처럼 심문하기도 하며 서민의 한을 풀어주는 말뚝이는 놀이판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양반탈

01

02

03

04

05

06

상식을 뒤엎기는 중도 예외가 아니다. 파계한 고승이나 노장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속이 시커멓다하여 먹중이라는 승려나 유이 읊아 유중 등으로 표현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워낙 유흥해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탈놀이에서 노골적으로 여색을 탐하고 살생을 일삼는다. 승려는 수양을 통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길러내는 존재이다. 이상은 고결하지만 현실은 지리멸렬하기 쉬운 것이 우리네 삶이다. 신성한 불교에 대한 戲謔的 표현은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았을까. 본산대놀이의 중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기도 하다. 나쁜 일을 하고도 희희낙락 할 만큼 뻔뻔하지는 못했나보다.

여성의 얼굴을 한 탈은 많지 않다. 할미만 거의 모든 탈놀이에 등장한다. 영감의 상대역으로 등장해 악다구니를 피붓는 역할이다. 입은 합죽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주름살 투성이에 이복구비가 세월의 흔적에 지워진 듯 흐릿하다. 영감은 어김없이 젊은 첩을 거느리고 나타난다. 인고에 지친 할미는 고단해 보인다.

무녀나 기녀, 하회탈의 부네가 또한 여자들이다. 모습은 대개 비슷하다. 작고 갸름한 얼굴에 연지 곤지를 찍고 붉은 입술을 하고 있다. 살짝 눈웃음을 흘리고 있는 하회탈의 부네를 제외하면 그녀들은 거의 무표정하다. 탈을 쓴 연희자도 거의 남성이 맡았다고 한다. 여장남자인 이 탈들은 대사도 거의 없다. 남자들의 놀이문화에 하나의 소품처럼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어진 것이다.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의 여성과 다르지 않은 탈들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회별신대의 각시 탈은 독특한 점이 많다. 외형적인 모습이 현실의 한국 아낙과 가장 유사하다. 남작한 얼굴에 두드러진 광대뼈와 긴 콧대, 찢어진 눈을 내리깐고 입술을 다문 모습이 어딘지 낯익다. 할 말은 많으나 체념한 듯한 표정이다. 사진작가 구본창은 '술푸'을 삼키는 듯,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내재된 한스러움이나 기억의 상처 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화를 누르고 있어 두 눈의 각도가 다른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전통 탈 중 유일하게 머리 위에 어섯 다래를 얹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신분을 유추할 수 있고, 또한 服飾史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탈은 본디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 쓴다. 위장의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인물로 환치하는데 탈은 참 효과적인 도구이다. 대놓고 할 수 없는 말도 가면의 힘을 빌리면 술술 풀리게 되었을 것이다. 탈을 쓴 이는 그래서 거침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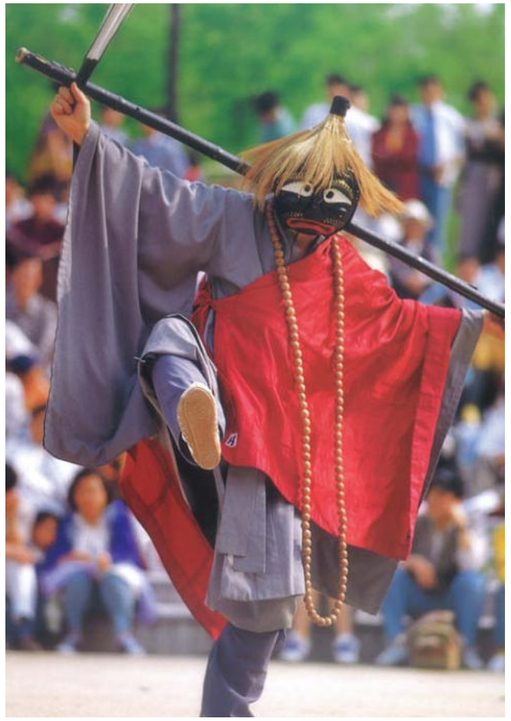
01 _ 소매각시. 강릉 관노가면극
02 _ 부네. 하회별신굿
03 _ 제대각시. 수영야류
04 _ 애사랑. 양주별신대
05 _ 용산삼개집. 강령탈춤
06 _ 할미. 하회별신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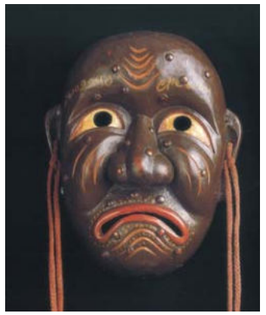
각시탈(하회별신대), 사진 구본창 제공

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이의 표정을 살필 수 없으니 진위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가슴 후련하게 웃었을 것이고, 탈놀이 판에서 정색을 하면 오히려 '도둑 제 발 저린 꼴'이 되는 셈이니까.

신기한 재주 펼쳐지며 북관 피리소리 요란한데
진짜 모습 가짜 얼굴이 정신을 현혹시키네
진짜는 진짜이고 가짜는 가짜인 것 구별할 필요가 무엇 있으랴
진짜와 가짜가 본래 한 뿌리에서 온 것인데 — 김구 『이밀양대연석관우희작』

이밀양대 잔치에서 탈꾼놀의 놀이를 보고 김구가 쓴 시이다. 탈이 정신을 현혹시키는 줄 알면서도 구경을 멈추지 않는다. 은폐와 신비화를 통해서 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탈만한 게 없다는 뜻일까. 그리고 드디어 진짜와 가짜가 한 뿌리라는 걸 간파한 걸 보면 어지간히 놀이에 몰입했나 보다. 그런 줄 알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내가 아닌 남의 얼굴을 하고, 가짜인 듯 진심을 숨기고, 신나게 한판 놀이를 즐긴 것이다. 완벽한 혼연일체를 위해, 탈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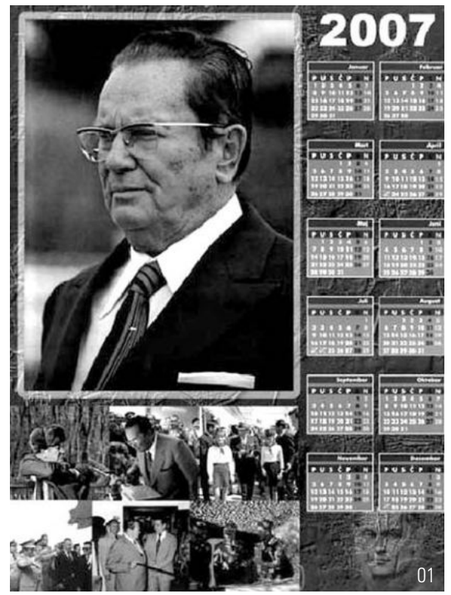
승탈

'더 나은 삶'의 정치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글_ 오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풍요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일까? '정치적 발전이 수반되지 않은 경제적 발전도 발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티토 치하에서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하였던 유고슬라비아의 현대사(1960-70년대)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티토 집권 하에서 유고슬라비아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 '볼지 쥐봇Boljizivot' 즉 '더 나은 삶'이라는 티토 정권의 모토는 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근대화를 위해 일했고, 그 덕분에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만났던 유고슬라비아의 중장년층들이 이구동성으로 티토에 대해 하는 말이 있다. '침대 하나에서 5~6명이 자야했고, 대학교육은 꿈도 못 꾸던 농부의 자식들은 티토 덕분에 대학 교육을 받고, TV와 냉장고가 있는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고, 주말엔 자동차를 타고 주말 별장(vikendica)에 가서 여가를 보내는' 근대적 시민, 근대적 소비자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이 바뀐 것이 티토라는 지도자 덕분이라고 생각해왔고, 심지어 '신 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01

그러나 티토는 결코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던 세르비아의 대표적 감독 에미르 쿠스트리차의 영화 〈아빠는 출장 중〉(1980)은 티토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라는 단 한 마디 말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간 젊은 아빠의 얘기를 다룬 이 영화는 티토 정권의 어두운 면을 잘 짚어내고 있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니 가는 것을 그 당시에는 '출장 중'이라는 은어로 불렀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잡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집권했던 기간 내내 많은 정치인, 지식인들이 숙청, 감금 등 여러 형태의 정치적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1950년대가 지나면서 억압적인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지지만 그럼에도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독재국가임에는 틀림없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관리제라는 독창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었다지만, 이는 명목상의 실행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일반 대중들에게 티토 통치의 어두운 면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주어지는 한, 개인적 관심사 이외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관리제'의 나라임에도 사람들은 반상회건, 직장 모임이건 공적 모임은 관심 밖이었다. '연방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적인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기 보다는 내 집 자물쇠를 튼튼한 것으로 바꾸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젊은이들은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 보다는 '데비 스트라우스(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이탈리아제 베스파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가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부모세대는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고, 자동차를 사고, 일 년에 몇 번씩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로 쇼핑 여행을 떠나 멋있는 서구 상품을 좀 더 싼 가격에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소비가 주는 편안함과 소비문화가 생산하는 이기적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된 유고슬라비아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조용히 지냈으며, '민주적 시민권' 대신 '좋은 아파트', '꽉 찬 옷장'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는 순응적인 대중이 되어갔다. 쿠스트리차 감독의 데뷔작 〈돌리벨을 기억하시나요?(Sjećaš li se Dolli Bell?)〉에서 읊어지는 대사처럼 유고슬라비아인들은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앞으로 발전한다(svakog dan, u svakom pogledu, sve više, naprodujem)"는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삶의 질 향상이 소비의 질 향상으로 축소되고 경도 됨에도 최면 상태에 빠진 유고슬라비아의 대중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발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물질적 풍요는 30년을 넘지 못했다.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높은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티토가 서구로부터 원조 받은 돈, 빌려온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빚으로 꾸려진 잔치도 1980년대가 되면서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다. 운 좋게도 티토는 그 버블이 터지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자신이 가져다준 '반쪽짜리 행복', '정치적 발전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적 발전'이 가져다 준 치명적 결과를 복도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문제는 온전히 티토 후계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찾았다. 즉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를 탓하면 됐고,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를 탓하면 됐다. 그러다 결국 1990년대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붙은 전쟁을 4년 동안 치르며 '티토의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해체시켰다.

02

유고슬라비아의 60-70년대를 공부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티토와 박정희는 모두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잘 살아 보세'의 근대화 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주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정치인 모두 그 목표 추구에 있어선 어느 정도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발전'이라는 절뚝발이 발전이 유고슬라비아를 해체로 몰고 가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는 (구)유고슬라비아의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가 겪고 있는 '반쪽짜리 발전'은 한국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고슬라비아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뿐더러, 유고슬라비아와는 달리 경제 성장의 동력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70년대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동유럽의 낙원'이라는 찬사를 받던 유고슬라비아의 근대화도 결국 사상누각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아시아의 기적 한국의 경제발전'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자문해 보게 된다. 우리도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앞으로 발전한다"는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꼭 봐야 할 어떤 것을 못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비가 주는 편안함과 소비문화가 생산하는 이기적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됐던 유고슬라비아 대중들의 그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불안감이 떨쳐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03

04

05

01 _ 티토의 사진이 들어간 2007년 달력

02 _ 유고슬라비아 영화
〈인생을 서두르며(Jagode u Grlom)〉(1985) 한 장면
주인공이 자신이 이주할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

03 _ 1960년대 유고슬라비아 '마이카 시대'의 상징 자스타바(Zastava) 자동차

04 _ 여름 바캉스의 유행 (대중잡지 Start 중에서)

05 _ 패션 관심의 대중화 (1960년대 Start 잡지)

하루가 쌓여 열흘이 된다
當日軒記

自人之不知有當日, 而世道非矣. 昨日已過, 明日未來. 欲有所爲, 只在當日. 已過者, 無術復之, 未來者, 雖三萬六千日, 相續而來, 其日各有其日當爲者, 實無餘力可及翌日也. 獨怪夫開者, 經不載, 聖不言, 而有托以消日者. 由此而宇宙間事, 多有不得盡其分者矣. 且天不自閉而常運, 人安得閉哉? 當然日所爲者, 亦不一, 善者爲善, 不善者爲不善. 故曰無吉凶孤旺, 但在用之者耳. 夫日積爲旬而月而時而歲, 成人亦日修之, 從可欲至大而化矣. 今申君欲修者, 其工夫, 惟在當日, 來日則不言. 噫! 不修之日, 乃與未生同, 卽空日也. 君須以眼前之昭昭者, 不爲空日, 而爲當日也.

글_ 李 用 休

사람들이 당일이 있음을 모르는 데서부터 세도가 비뚯되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오로지 당일이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난 시간은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아무리 3만 6천일이 연이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날은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까지 손쓸 여력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저 한가할 閑이란 글자는 경서에도 실려 있지 않고 성인도 말씀하지 않으셨건만, 그것을 핑계로 사람들은 세월을 허비한다. 이로 말미암아 우주에는 제 직분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이렇다. 하늘 자체가 한가롭지 않아서 늘 운행하고 있거늘, 사람이 어떻게 한가하게 어유를 즐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당일에 행할 일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 따라서 길하고 흉하며, 운수가 사납고 좋건 간에, 하루는 시간을 쓰는 사람하기에 달려 있다.

하루가 쌓여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계절이 되고 한 해가 된다. 한 인간을 만드는 것도, 하루하루 행동을 닦은 뒤에야 크게 바뀐 사람에 이르기를 바랄 수 있다.

지금 신군이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공부는 오직 당일에 달려 있다. 그러니 내일은 말하지 말라!

아! 공부하지 않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날과 한가지로 공일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눈앞에 환하게 빛나는 이 하루를 공일로 만들지 말고 당일로 만들라!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글이다.

신군은 앞에 나온 신의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가 당일헌이란 이름의 집에 걸어둘 글을 청하였다. 작자는 그에게 내일을 핑계 대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주었다. 교훈을 말하되, 식상하지 않게 말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용휴의 외손자인 이학규는 김해에서 지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요 내일의 어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게 진시황이나 한무제보다도 열 배나 더한 권능과 위력을 넉넉하게 베풀었으므로 결코 한 시각도 미루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은 눈을 꿈적하고 숨을 들이쉬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글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와 언어가 외손자의 글에도 깊이 배어 있다.

| 번역 · 해설_ 안 대 회, 『고전산문산책』, 휴머니스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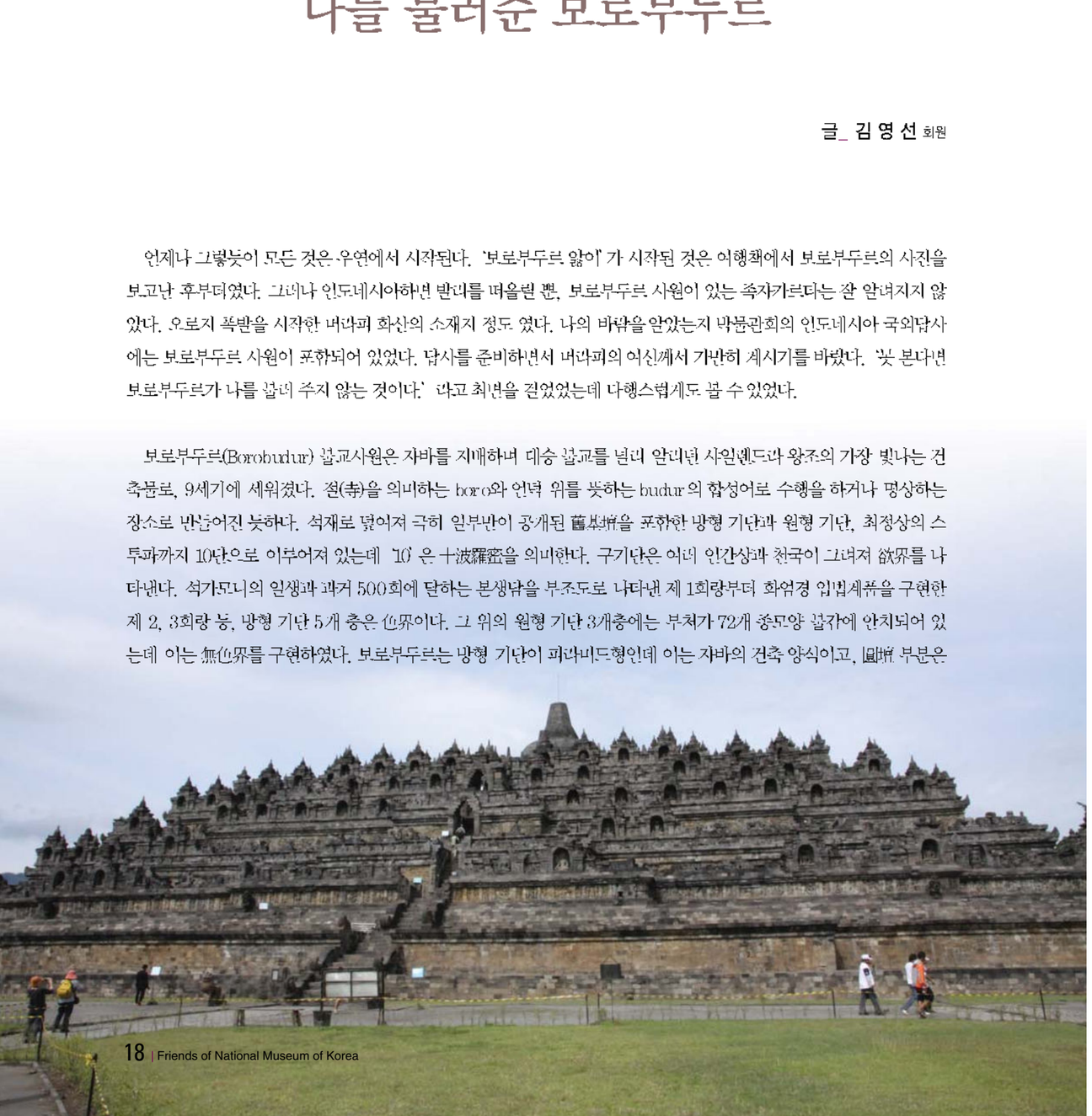
이용휴 | 1708~1782. 조선후기의 문인. 초야에 머문 선비였으나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탄만집」, 「혜환시초」, 「해서개자」 등이 있다.

나를 불러준 보로부두르

글_ 김영선 회원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은 우연에서 시작된다. '보로부두르 앓이'가 시작된 것은 여행책에서 보로부두르의 사진을 보고난 후부터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하면 발리를 떠올릴 뿐,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는 족자카르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로지 폭발을 시작한 머라피 화산의 소재지 정도 였다. 나의 바람을 알았는지 박물관회의 인도네시아 국외답사에는 보로부두르 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답사를 준비하면서 머라피의 여신께서 가만히 계시기를 바랐다. '꿎 본다면 보로부두르가 나를 불러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최면을 걸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볼 수 있었다.

보로부두르(Borobudur) 불교사원은 자바를 지배하며 대승 불교를 널리 알리던 사일렌드라 왕조의 가장 빛나는 건축물로, 9세기에 세워졌다. 절(寺)을 의미하는 boro와 언덕 위를 뜻하는 budur의 합성어로 수행을 하거나 명상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듯하다. 석재로 덮어져 극히 일부만이 공개된 基壇部을 포함한 방형 기단과 원형 기단, 최정상의 스투파까지 10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은 十波羅密을 의미한다. 구기단은 어떤 인간상과 천국이 그려져 欲界를 나타낸다. 석가모니의 일생과 과거 500회에 달하는 본생담을 부조도로 나타낸 제 1회랑부터 화엄경 입법계품을 구현한 제 2, 3회랑 등, 방형 기단 5개 층은 色界이다. 그 위의 원형 기단 3개층에는 부처가 72개 종모양 불감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無色界를 구현하였다. 보로부두르는 방형 기단이 피라미드형인데 이는 자바의 건축 양식이고, 圓頂 부분은



01

02

03

둥근 스투파 모양으로 인도의 산치 대탑을 연상시킨다. 인도에서 전파되었지만 현지의 건축 양식과 결합된 하나의 커다란 스투파를 연상시키는 사원을 만들었다. 각 회랑의 좌우에는 1,460면의 안산암 부조도가 사원 전체에 펼쳐져 있다. 손상이 심하여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다 둘러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했다. 숲을 볼 것인가 나무를 볼 것인가. 답사를 갈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음이다. 이번에 나는 확인에 그치더라도 나무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보로부두르가 나를 다시 불러줄 지도 모르니까.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곳은 제1회랑의 주벽으로 상하 2단 중 위쪽은 석가모니의 일생이고 아래에는 본생담이 새겨져 있다. 이제까지 내가 보아 온 석가모니의 일생도는 열반까지라 해도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보로부두르에서는 도솔천에서 명상에 잠긴 석가모니부터 초전법륜까지의 장면이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르는가. 석가모니도 다르지 않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이모 품에 자라면서 학교를 가고 결혼하기 위해 야소다라를 선택했다. 그 후 출가를 결심하지만 아버지 정반왕은 그 출가를 말리려 하였다. 많은 감시인을 세워 놓았으나 그들도 睡魔에는 어기질 못하고 잠들어 버린다. 의자에 기대고, 머리가 뒤로 넘어 가고, 다른 사람 등에 기대 잠든 모습이 오래 전 내 모습처럼 친근했다. 120여 면의 벽화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조각한 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벽돌에 조각을 하고 퍼즐을 맞추듯이 한 면으로 구성해 놓았는데 꼭 하나의 커다란 돌에 조각을 한 뒤 일부러 자른 것처럼 보인다. 한 명이 쓴 것처럼 보이는 팔만대장경이 30명이 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느껴본다.

제1회랑에 있는 시비왕 본생도는 내가 특히 보고 싶던 장면이다. 시비왕은 굶주린 매를 피해 도망 온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비둘기의 무게만큼 자신의 살을 자른다. 그런데 잘라도 잘라도 비둘기의 무게에 미치지 않는다. 자신을 바쳐서 다른 이를 구하는 신행, 布施가 그려져 있다. 시비왕 이야기는 돈황 254굴에서 본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본생담의 하나가 되었다. 돈황에서 느꼈던 강인함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회랑 어딘가에는 捨身飼虎圖, 원숭이 대장 이야기, 연등불을 만난 전세의 석가모니도 있을 텐데 찾지 못하고 알아 보지 못하니 아쉽기만 하다.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보면서 방형 기단에 오르면 鐘형의 불감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났다. 원단에 올라가지 못해 각 방향별로 다르다는 수인은 볼 수 없었다. 수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일까. 이미 넘쳐 날 정도로 부처를 느꼈는데. 불상은 곧 부처의 가르침이고 종은 소리를 내니, 종을 울려 설법을 알리게 한 건 아닐까. 범종이 울릴 때마다 널리 퍼져서 모든 곳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바랐던 성덕대왕 신종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글_ 강현자 회원

01 _ 출가전 잠든 사람들 부조
02 _ 시비왕 본생도 부조
03 _ 사원 입구의 사자조각
04 _ 원형기단 위 종모양 불감

시대가 비슷해서였을까, 보로부두르의 어느 곳에서 나는 우리의 신라를 생각하였다. 이국의 종교를 받아들여 자국에 부처의 나라를 건설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나라. 입구에 문지기라기에는 너무 귀여운 사자가 있었다. 경주 박물관의 앞뜰에서 땅을 굽으며 웃고 있는 신라의 사자를 연상시킨다. 문득 올려다보니 가만히 내려다보는 부처가 보였다.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는 경주 남산의 부처를 본 것같아 기쁘고 조심스러워졌다. 보로부두르를 뒤돌아 나올 때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불국사 극락전 뒷 축대의 산을 떠올렸다. 누가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세상을 살았을까. 모든 일에는 의욕을 가진 이가 있고, 실행에 옮기는 이가 있고, 가장 아래에서 유지하는 이가 있다. 나는 밑에서 유지하는 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천이백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전해져 우매한 나를 움직인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보로부두르를 떠난 길 위에서 족자카르타의 시장을 만났다. 소박하기 보다는 초라해 보였는데, 그저 내 생각일 뿐 그들은 편안해 보였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의 질문에 활짝 웃으며 대답해 주는 노점상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少欲知足」이라는 내 인생의 화두를 보았다. 분득 몇 주 전에 본 신문 기사 – 한국의 50대 여자가 가장 불행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떠올랐고, 보로부두르 구기단에서 본 추한 얼굴 부조도 생각났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행복한가.

삶이란 때때로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까마득할 때가 있다. 사방은 뻥 뚫려 있지만 어디로 가야 이 광활한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나타나기를 꿈꾼다. 비록 사막과 같은 삶일지라도 끊임없이 꿈을 찾아 나서면 끝내는 곳곳에 숨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중퇴를 하면서 내게도 그런 사막과도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꿈도 없고, 의욕도 없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인생이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처음엔 윽박지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딸아이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 미술〉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번 강의는 오아시스만 이해해도 중앙아시아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답답한 내 생활 속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아시스라는 말이 나의 막막한 일상에 희망처럼 접목되어 왔다. 사막 한 가운데서 한발 한발 내딛는 심정으로 희망을 찾아 나섰다. 꿈을 꾸는 자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리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알아야 한다. 인도 간다라 미술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다. 서역아시아의 고대 도시 파미르에서 중국 비단 유물이 발견되어 옛 상인들의 육로를 알게 되었다. 고대인들은 동서교류의 메인루트인 실크로드 그 심장부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죽음을 불사하고 횡단하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동서 문화를 꽃피운 키워드는 실크로드이고 그 원동력은 오아시스이다. 사막은 지혜가 있을 때 존재한다고 했다. 불모지의 사막에 실크로드를 내고 그 중심에 오아시스를 개척하였다. 메마른 사막에 세워진 카슈아, 투르판에서는 깊이 50m의 우물을 지하로 연결한 카레즈로 농작물을 키웠다. 소배과 옥수수, 복화, 포도 등을 재배하여 사막을 지켜냈다. 또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은 황량하고 무서운 사막의 날씨와 침략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석굴사원을 찾아 무사안녕을 빌며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척박한 자연을 극복하고 일궈낸 파미르, 카슈아, 투르판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마음 속의 사막을 생각했다. 제2의 반항기를 심하게 앓는 딸아이의 방황과 고민에 가슴이 저려왔다. 어렸을 적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딸아이의 모습이 애틋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엄마로서 사랑이라고 쏟았던 사랑의 방법에 대해 되돌아 보았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와 편견의 잣대가 마음을 무겁게 억누른다. 요즘 아이들이 갖는 도덕적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양팔 없이 발로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천사 같은 아이도 있는데……. 차츰 마음을 바꾸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자 딸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졌다.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답을 얻게 되듯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구했다. 딸아이에게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대치를 조금씩 허물자 내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욕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비워야 오아시스 같은 쉼터를 만나게 되리라.

사막이 신비로운 것은 꿈처럼 다가오는 오아시스가 있어서이다. 삶이 살아볼 만한 것도 어딘가에 있을 희망 때문이리라. 간다라 미술이 버나면 실크로드를 통과해 우리에게 전해져 찬란하게 꽃피었던 것처럼, 삶도 고진감래 끝에 환하게 웃게 될 것을 믿는다. 우리의 유물들이 더욱 아름답고 신비하게 느껴졌다. 고고하고 황홀한 고려불화와 석굴암 본존불의 자비로운 미소가 다시 보였다. 빨려들 듯 심오한 명상을 하고 있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보며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를 떠올렸다. 수월관음보살도의 화려함과 활짝 핀 연꽃분 와당에서 북북히 죽음의 길을 걷던 상인들을 생각했다. 사막을 지키고 그 길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찬란한 불교문화를 전승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사막의 한 가운데에 실크로드가 있고, 오아시스로 인해 우리는 불국사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크로드는 문명을 소통시키는 길이고, 그 꽃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오아시스는 문화가 유통되는 통로였다.

사막이 피워낸 꽃 오아시스, 사막이 있기에 오아시스가 존재한다. 인생에서 한순간의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삶의 한 부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아득한 사막에서 길을 찾아 헤맨 때 사막인들의 지혜를 배워 용기를 내보는 것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에도 투르판과 파미르가 존재하듯, 삶에도 희망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딸아이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자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반항하던 딸아이가 서서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나, 친구 만나러 나가요. 일찍 들어올께요."

웃으며 나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신 느낌이 이렇지 않을까. 그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희망의 감로수가 싸하게 흘러드는 느낌, 아마 사막의 낙타는 알고 있을 것이다.

01

진열장 속의 내 반지

01

글_ 최 예 정 회원

박물관 강좌를 들으며 소위 '박물관사람들'이 된 이후 유달리 기분 좋은 일은 전시실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번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섭렵해야지 하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주제를 정해서, 혹은 아이템을 골라서 마음가는대로 마냥 뚫어져라 바라보는 내 모습에 절로 어깨가 으쓱 힘이 들어간다. 오늘 내 마음에 꽂힌 주인공은 반지들이다. 워낙 반지를 좋아하고 귀금속으로보다는 모양에 관심이 많아서 남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특이한 반지를 많이 갖고 있다. 관심도로 봐서는 진즉에 꿰뚫고 있어야 했을 텐데 왜 이제야 생각났는지 모를 일이다. 막상 반지를 찾아 나서니, 유럽왕조처럼 화려한 컬렉션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띄엄띄엄 달랑 진열장 두 개가 고작이다. 사치스러운 내심을 우롱하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그 희소성 때문에 더욱 가치가 올라가겠거니 하고 또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 첫 번째 귀하신 몸은 신라고분에서 발견된 金製指環이다. 경주 서봉총, 호우총, 금령총, 금관총에서 출토되었다. 서봉총에서 나온 아홉 개의 반지는 각각 약 반 돈 가량으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전체 폭이 균일하다가 앞면을 약간 넓게 강조하였고 고리는 손가락 굵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호우총과 금관총의 것은 기본 모양은 같고 넓은 앞면에 누금세공(낱알장식)으로 금 알갱이를 띠처럼 쭉 이어 붙여 장식했다. 도드라진 띠 한 줄만으로도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되었다. 금령총의 반지는 조금 더 멋을 부렸다. 고리모양과 누금수법은 같지만 가운데에 마름모꼴 돌기를 새겨 넣어 마치 금빛 보석반지처럼 보인다. 선에서 면으로의 진화가 아름다움을 훨씬 업그레이드시켰다.

신라에서는 많은 금·은 반지가 껴묻거리로 출토된 걸로 봐서 당시 금은세공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반지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무덤에서 굵기가 다른 반지가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은 양쪽 손가락에 두루 반지를 끼었다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게다가 뒤를 열어 놓음으로써 누구나 낄 수 있게 한 점이 실용적이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모양새는 신기하게도 요즘의 아기 돌반지와 같다. 5~6세기라는 제작연대가 무색하게 천 오백년의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 당시의 미적 기준이 결국은 오늘날에까지 통용되고 있으니, 시간을 초월한 '절대반지'임에 틀림없다.

특이하게도 같이 출토된 금세공품 중에서 반지가 가장 소박하다. 은령총의 귀걸이는 반지보다도 굵은 고리에 그 아래로 꾸미개를 10cm나 주렁주렁 늘어뜨렸다. 노서동의 금팔찌는 살아 움직이듯 역동적인 네 마리의 용을 안팎으로 새겨 넣었다. 또 보물 456호 금목걸이는 가운데 곡옥을 정점으로 나뭇잎 모양의 날개를 수없이 매단 채 반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그에 비하면 반지는 너무 소소하고 담박하다. 그저 금이라는 것 이외에는 내세울 거리가 없다. 아마도 당시에는 치장의 수준을 넘어 계급사회의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잘 내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 즉 머리·귀·목 등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꼭꼭 숨어 있던 반지를 3층 금속공예관의 유리진열장 속에서 찾아냈다. 금반지뿐 아니라 예쁜 보석반지들도 보였다. 소위 말하는 셋팅이 약간 구식이지만 정말 유물 같지 않게 현대적이다.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패물 같기도 하다. 보석반지들은 진주, 비취, 호박을 보석걸이에 끼고 철보 장식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보석반지는 고리와 보석걸이 및 보석을 끼우는 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리의 형태는 원

02

03

형이고 보석걸이는 보석을 박을 수 있도록 넓고 두꺼우며 두툼한 부분에 패인 홈은 원형 혹은 타원형이다.

진주반지는 보석걸이를 높게 해 동그란 진주를 폭 감싸 안고 칠보로 문데레를 세웠다.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호박반지는 타원형의 호박을 박고 귀퉁으로 네 장의 꽃잎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공했다. 네 장의 모양이 하나도 같지 않게 귀퉁을 자유자재로 구부려서 이어 붙였다. 또 다른 호박반지는 동글납작한 호박을 세 개의 삼각걸이에 끼우고 양쪽 둘레를 조각하여 칠보를 겹눌였다. 다른 알반지답게 보석걸이가 높고 고리는 굵다.

반면 옆의 금반지들은 역시 오늘날 돌반지처럼 앞면을 넓고 약간 두툼하게 강조했다. 혹은 누금기법으로 바탕모를 반듯하고 그 안에 작게 청색 비취를 박은 것도 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앞 분방구의 한 귀퉁이 뿌연 유리장 안에 놓여 있던 가짜 반지가 생각난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틈 속에도 유리장 속 반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내 모습이 보인다. 분명 분방구를 나서는 내 손에는 빈 공기만 가득하다. 왜 그 때는 가질 수 없건만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찼을까.

우리 선조들은 반지를 낄 때도 나름의 방식이 있었다. 원래 한 짝만 끼는 것은 반지라 하고 쌍으로 끼는 것을 가락지라 하여 미혼은 반지를 끼고 기혼녀는 가락지를 끼었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서 종류를 바꿔 끼기도 했는데 겨울에는 금지환, 봄·가을에는 칠보 지환을, 여름에는 옥이나 마노 지환을 끼었다고 한다. 또 가락지가 두툼하여 손가락에 끼기에 부담스러울 때는 노리개로 꾸며 옷고름에 매기도 했다. 반지 낀 손만 보더라도 결혼유무, 계절 등도 알고 다른 장신구로 변형시켜 은근히 멋을 부리니 여간 지혜롭지가 않다.

문득 내 반지를 생각한다.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반지들이 내 손을 떠나 몇 십 년, 몇 백 년 후에 박물관의 진열장에 놓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에지중지 내 손때만 묻힐 게 아니라 잘 묻지르고 보듬다가 호기롭게 박물관에 기증해야겠지. 아니, 기증한다고 해도 아무것이나 전시하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름도 남기고 유물도 남기고……. 그럼 딸들이 자기들 몫은 어디 있냐고 아우성치겠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 내 반지의 향방은.

그래도 반지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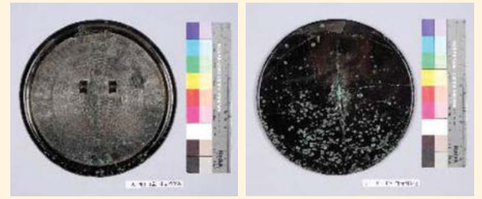
01 _ 금반지, 지름 2.0cm, 황남대총 남분출토
02 _ 금반지, 지름 1.9cm, 황남대총 북분출토, 보물 제623호
03 _ 금반지, 지름 1.8cm, 황남대총 남분출토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

글_ 박 학 수 보존과학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이하 국보경)은 문양의 세밀함과 정교한 기하학적 배치로 인해 뛰어난 청동기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유물로 평가 받고 있다. 당시의 기술로 이와 같은 청동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서 그 제작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복원실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국보경의 제작방법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국보경을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수행하며 세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바탕으로 제작기술을 살펴보았다.



a. 배면 b. 경면

그림 1_ 다뉴세문경의 형상(보존처리 후)

2. 조사방법

국보경의 세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진촬영과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화상의 기록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촬영된 화상은 화상분석기로 정량적인 측정을 하였다. 실측에는 버니어캘리퍼스와 두께 게이지 등을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

가. 형상

국보경은 그림 1에 보이는 것처럼 크기는 212.2㎜로서 정면은 평탄하고 배면에는 기하학적인 문양과 두 개의 뉴가 존재한다. 문양이 있는 배면은 내구, 중구, 외구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외구에는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이 세로로 배치 되었고, 그 사이 사이에 내행의 동심원이 배치되어 있다. 중구에도 삼각집선문이 있으며 내구에는 네개로 구획된 영역에 삼각집선문이 있으며, 두개의 뉴는 중심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다. 뉴의 좌우에는 각각 중형지지부(core print)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나. 주조결함

주조결함은 주조 조건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 생기며, 주조결함마다 발생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면 주조 조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국보경에도 다수의 주조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림 2에 대표적인 주조결함들을 나타내었다. 원1(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단 좌측에 있는 동심원부터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1번부터 8번까지 부여하겠음)의 상단에 있는 주연부에는 분리된 거푸집으로 인해 외구와 주연부의 형상(이하 결함1)이 박혀 있으며(a), 이것은 주연부에서 시작하여 좌측 하단으로 배면을 가로질러 경면까지 이어져 있다. 이 결함은 지금까지 복원재에 의해 가려져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었다. 원1과 원2사이의 외구와 주연부에는 주형모서리 붕괴(corner scab, 이하 결함 2)가 발생하여 원래의 문양이 사라졌으며(b), 원2에는 외구와 주연부에서 분리된 편의 형상(이하 결함3)이 존재한다(c). 결함1과 결함3을 원래의 위치로 배치하면 결함2의 표면을 덮게 되어 이 부위에서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g). 표면에는 쥐꼬리 결함(rat tail)이 다수 발생하여 주연까지 진행하였고, 특히 하단(d)과 결함1의 왼쪽(e)에는 주형이 부풀어 올라 주물의 두께가 줄어들어, 스캡(scab)이 생기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a. 문양을 가진 결함(결함1)　b. 주형 모서리 붕괴(결함2)　c. 문양을 가진 결함(결함3)　d. 하단의 외구와 주연의 직교크 결함과 스캡　e. 상단의 주조결함

f. 경면 상단의 주조결함　g. 결함 1, 2, 3의 위치　h. 결함 1과 결함 3의 원래 위치

그림 2 _ 주조결함의 형상

경면에도 거푸집에서 분리된 모래 혼입으로 인한 주조결함이 존재하며, 이 부위는 일부가 배면에 있는 결함3의 아래에 놓여 있다(f).

다. 거푸집

(1) 재질

거푸집의 재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토범을 사용하여 문양을 그리는 경우, 석범에 문양을 새기고 주조하는 경우, 석범에 문양을 새긴 후 밀랍으로 떠낸 후 그것을 거푸집 재료로 감싸 주형을 만들었다는 것 등이 있다.

다뉴세문경에 존재하는 주조결함에서 거푸집에 사용된 재료를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주연부에 있는 결함1은 주연부에서 시작하여 배면을 지나 경면까지 이어져 있는데 배면과 경면 사이에는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푸집 재료인 모래 혼입(sand inclusions)이 존재한다(a). 이 부위는 앞서 설명한 결함2의 외구에서 분리된 것으로 문양의 굴곡과 함께 모래의 입자도 관찰할 수 있다(b). 또한 그림 3에서 보인 결함3(c)과 하단의 주연부(이하 결함4, d) 등에서도 사질의 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로서 석범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보경은 주물사를 굳혀서 거푸집으로 만든 사형(砂型)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2)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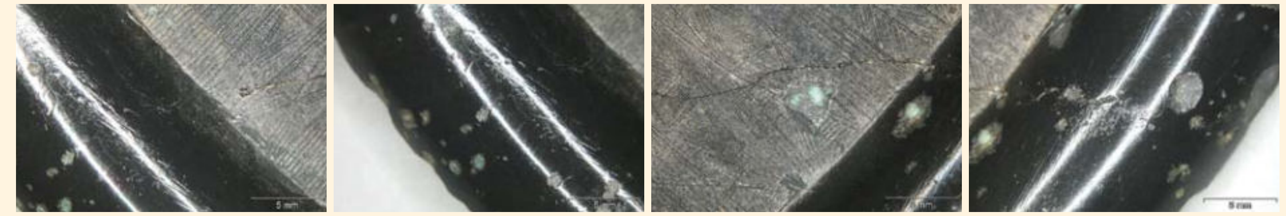
청동기를 제작하는데 거푸집이 개방형(open mold)인지 폐쇄형(closed mold)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개방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응고 시 수축된 부위를 연마에 의해 제거하면 청동거울을 만들 수는 있다. 거푸집의 형식에 대한 해답은 주연부에 존재하는 주조결함(결함 1, 그림 2 참조)인 모래 혼입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주조 과정에서 거푸집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밀도가 용융 금속보다 낮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거푸집이 개방형이라면 이런 개재물은 경면에서만 발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개재물이 사선으로 경면과 문양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거푸집이 개방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형상은 폐쇄형일 때 분리되어 상승하던 거푸집의 편이 거푸집의 양쪽에 걸려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푸집은 폐쇄형으로 보아야 한다.

(3) 다른 재질의 복합 가능성

우측하단의 주연(결함4)에서 매장지의 흙을 제거하면 거푸집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의 d). 현재 남겨진

a. 경면과 배면을 가로 지른 모양　b. a의 확대상　c. 결함 3의 주물사　d. 주연부의 스캡(결함4)

그림 3 _ 주물사의 분포



a. 좌측 하단의 결함　b. 좌측 하단 주연부의 결함　c. 우측 하단의 결함　d. 우측 하단 주연부의 결함

그림 4 _ 쥐꼬리 주조결함의 분포

거푸집 재료의 위치를 보면 주연부의 거의 상단까지 거푸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주물사의 입자가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높이까지는 토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거푸집의 균열로 인해 생긴 균열이 주연부의 외곽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보아 용탕이 닿는 면은 모두 단일한 재료인 주물사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문양

(1) 조각 방법

외구에 있는 동심원들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화상분석기로 원주의 3점을 잡으면 원이 그려짐과 동시에 중심이 구해진다. 이런 절차로 중앙에 있는 2-3개의 곡선을 제외한 21개의 원에 대해 반지름을 구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각각의 동심원에 존재하는 21개 원의 반지름 분포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동심원은 다치구를 이용해 동시에 그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은 내구의 외곽에 존재하는 원들로서 상부의 원주에서 시작과 끝 부위의 겹침이 보이는데 이것이 중심에서 직선상으로 분포하고 있지 않다(a). 만약 다치구로 동시에 그렸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내구의 우측 하단에도 하나의 원에서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 외곽원은 컴퍼스를 이용해 하나씩 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b).

주연을 포함한 배면 전체를 규형(規型, 挽型)으로 조각하여 복원 실험을 한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외구와 주연이 만나는 경계와 주연의 가장 높은 부분(거푸집에서는 가장 많이 파인 부분)까지의 높이는 일정하게 된다. 국보경의 주연부 두께와 외구 바깥 부위의 두께를 10° 단위로 측정하고 그 두께 차를 구한 것이 그림 7이다. 일부 주조결함과 복원 부위의 값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두께가 균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림 8과 같이 규형을 사용할 때 그 깊이가 균일하지 못하여 모식도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주연의 두께에 차이가 생겼다면(a1<a2), 외구의 두께, 주연과 외구 두께의 차이도 오른쪽이 큰 b1<b2, c1<c2의 관계가 성립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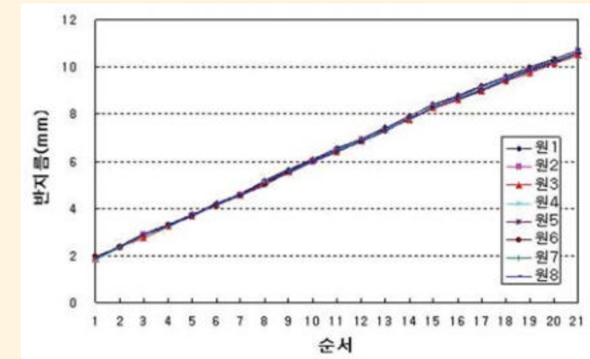


그림 5 _ 외구 동심원의 반지름 분포

a. 내구 상단　b. 내구 하단

그림 6 _ 내구 외곽원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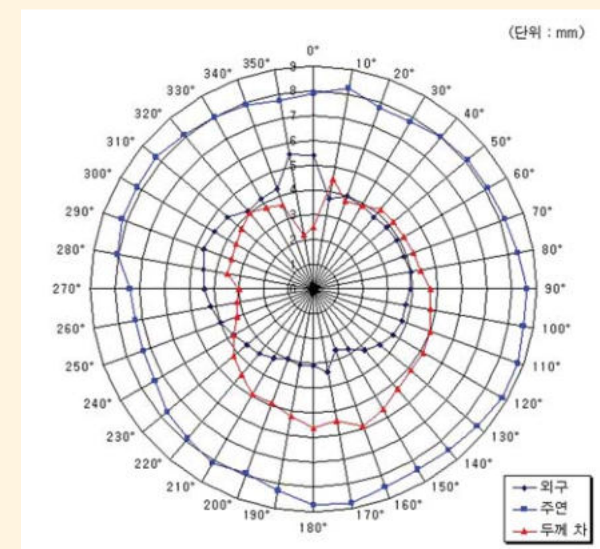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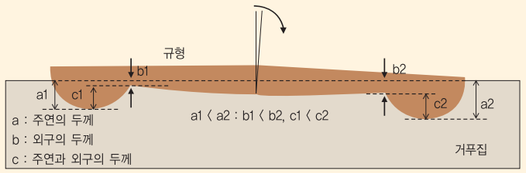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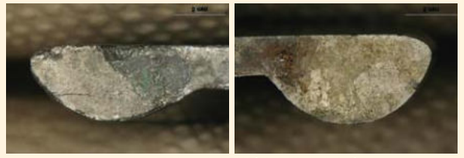


그림 7 _ 외구와 주연의 두께와 그 차의 분포



a. 규형 사용 시 단면의 두께 변화



b. 좌우 주연의 단면 형상(상하 반전 이미지)

그림 8_ 규형의 사용 여부와 주연의 단면 형상

어야 한다. 그러나 국보경의 좌우 단면을 상하 반전한 (b)에서는 왼쪽 외구의 두께가 오른쪽보다 큰 형상을 하고 있다(b1>b2). 따라서 주연부의 경우 규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구와 접하는 안쪽 원의 중심이 다른 원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원판을 대고 파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는 곡면을 가진 조각도를 이용하여 미리 구획된 도안을 따라 파낸 것으로 추정된다.

(2) 조각 순서

조각순서는 문양을 구획하고 있는 선을 우선으로 하고 구획된 내부에 있는 것을 나중에 조각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표 1은 이런 방법으로 선후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먼저 거푸집이 가운데가 우묵한 형상이 되도록 배면을 전체적으로 파내는 것이 우선이다. 규형으로 주연부와 외구를 동시에 조각하면(즉 외구에 문양을 새기기 전에 주연을 파는 경우), 외구에 문양을 새길 때 주연의 하부에 문양의 흔적이 깊게 새겨지게 된다. 하지만 국보경은 그림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구와 주연이 접하는 부위에서 외구 문양의 높이에 변화가 없다(a). 따라서 국보경은 외구의 문양을 새긴 후 주연을 팠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뉴와 내구의 순서도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내구의 문양이 뉴까지 연장된 경우가 없으므로 뉴도 내구를 조각하고 나서 팠다고 보아야 한다(b).

a. 외구와 주연

b. 오른쪽 뉴와 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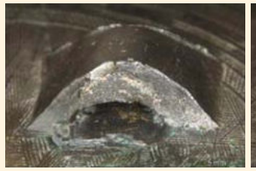
그림 9_ 조각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문양

마. 사용여부와 뉴의 형상

국보경의 사용 여부는 뉴 옆면의 표면 거칠기를 통해 판단하였다. 만약 뉴광에 끈을 넣어 매달아 사용했다면 끈과 닿는 부분은 마찰에 의해 마모가 일어나 그렇지 않은 부분과는 표면 거칠기가 다를 것이다. 그림 10은 두 뉴의 옆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안쪽을 향하고 있는 면은 전체가 균일한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바깥으로 향한 면에서는 두 뉴에서 모두 주위의 거친 표면과 달리 매끈한 부위가 중심에서 상부 사이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매끈한 표면은 주조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끈과의 마찰에 의해 길리며 생긴 것이다. 바깥 부위에서만 이런 표면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끈으로 두 뉴를 관통하여 매달았음도 알 수 있다.

구역 / 순서	내구		중구	외구		주연	탕구계
선 ↓ 후	파내기						
	구획 원						
	+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동심원		
	구획 직선	집선문	삼각문	삼각문	집선문	집선문	
	삼각문						
	집선문						
	뉴 중형		집선문	집선문			
						주연	
							탕구계

표 1_ 구역별 제작 순서



a. 좌측 뉴의 안쪽

b. 우측 뉴의 안쪽

c. 좌측 뉴의 바깥쪽

d. 우측 뉴의 바깥쪽

그림 10_ 뉴의 마모 흔적

4. 맺음말

지금까지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푸집은 주물사를 굳혀서 문양을 새긴 사형이며, 거푸집의 강도가 약하여 스캡과 쥐꼬리등의 주조결함이 발생하였다.

작도는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고 각의 2등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평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외구의 동심원은 다치구를 사용하였으나, 구획원은 컴퍼스로 하나씩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연의 조각에는 규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구의 조각을 마친 후 팠다. 뉴의 바깥쪽에 마모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심 사 평

이 다뉴세문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경 학계에 알려진 후부터 한국 고고학 및 미술사는 물론 일본 고고학계에도 이 동경의 제작기술에 대해 계속 궁금해 하던 유물로 일명 국보경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2007년 7월~2008년 8월에 걸쳐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40여 년 동안 궁금해 하던 다뉴세문경의 제작 기술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①주조결함에 잔존한 모래의 입자를 관찰하여 거푸집 재질이 주물사를 굳혀서 만든 사형임을 규명하였고 ②도안(문양 새기기) 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에 주연과 구획원을 동시에 새겼다는 그 동안의 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③문양의 작도 순서 규명과 ④뉴의 측면을 과학적 정밀 조사하여 이 국보경은 실제 사용되었던 것임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미세조직과 원료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사용 광석의 종류와 납의 산지를 규명하였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던 국보경을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여 안정화시키는 등 현대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번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 기술은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얻어진 연구 성과로 고고학, 미술사 등의 인접학문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작 기술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주조결함과 거푸집 재질의 상관관계, 정량적인 측정을 통한 조각의 순서 및 방법 등은 다른 동경을 연구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될 것이다.

심사위원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다뉴세문경의 제작기법에 관한 의문은 계속 있어왔었고, 이 의문은 이 논문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할 수 있다.

세부 촬영과 분석을 통해 과거 제작 과정을 밝혀내는 일은 보존처리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논문은 성실하게 그 임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자의 경우 제작기법뿐 아니라 분석 및 보존처리에 관한 논문도 함께 게재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결과 보존과학의 광범위한 영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단, 성분분석에 관한 논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는 저자가 다른 이유이므로 하는 수 없고, 이 논문만으로도 충분히 보존과학 관련의 우수논문이라 생각한다.

심사위원 박지선 (용인대학교 교수)

김영나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중심 박물관이 되는데 든든한 버팀목 같은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상을 제정하여 학예직의 학구열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 사회에 기증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다지요. 특히 YBM 모임에서 젊은 후원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나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취임했다. 한 달 남짓, 업무 파악을 마친 김관장은 우리회와의 첫 인사를 덕담과 당부로 시작했다. 다소 느리고 조용조용한 말씨지만 요점이 확실하다. 사실 김관장은 취임부터 관심과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김재원 초대 박물관장의 딸로 최초의 부녀관장 시대를 연 있다며 언론의 조명을 받는 한편, 박물관의 수장이 서양미술 전공자라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럴 때부터 우리 박물관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을 김관장에게 분야가 다르다는 거북은 별 의미가 없이 보인다. 유수의 박물관을 누루 섭렵한 세계적인 안목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시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박물관의 규모나 관람객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지요. 좋은 전시를 기획해야 하고요. 그에 걸맞은 유물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이지요. 관람시설의 확충 등 부분적인 미흡함도 개선하겠습니다. 눈에 확 뜨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질을 높이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질'을 강조하는 관장님의 포부를 들으니 시작부터 남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장황하고 거창한 계획보다 실속 있을 것 같다. 또한 권위적이지 않아 묘한 신뢰감을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다려진다.

글_ 하영남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구 분	전 시 명	전시기간	장 소
기획전	실크로드와 둔황	~ 4. 3	기획전시실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전 : 1600~1800년 유럽의 장식미술	5. 3 ~ 8. 28	
	한국의 초상화 : 초상화의 비밀	9. 27 ~ 11. 6	
	바티칸 박물관전	12. 6 ~	
특별전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2. 28 ~ 4. 17	특별전시실
	우리민족의 맥박, 국악	5. 10 ~ 6. 26	
	인도불교미술	6. 12 ~ 9. 18	
	외규장각 의궤	7. 18 ~ 9. 18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	10. 4 ~ 11. 27	
테마전	차와 향, 그리고 혼을 담다 -신안 용천 청자-	3. 22 ~ 6. 19	아시아관
	부안 유천리 도자	4. 5 ~ 5. 29	조각 · 공예관
	몽골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발굴 성과전	4. 12 ~ 5. 15	선사 · 고대관
	우리 국토의 길라잡이, 대동여지도	4. 12 ~ 5. 15	중 · 근세관
	내소사 괘불	5. 10 ~ 8. 28	서 화 관
	중국의 길상	9. 20 ~ 12. 18	아시아관
	중국 사행을 다녀 온 화가들	10. 18 ~ 12. 11	서 화 관
	낙랑	10. 28 ~ 12. 25	선사 · 고대관
	조선왕실 발원 금속공예	11. 15 ~ 1. 29	조각 · 공예관

* 2011년 전시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在万, 金秉祺,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金正泰
理　　事 | 金英那 金宗聰 金信韓 朴仁順
成暻鎬 申秉秀 申僖均 申遠澈
尹碩敏 尹在佮 鄭口勳 池健吉
崔光植 洪政順
監　　事 | 金義制 鄭廷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信一	세중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하나은행	金正泰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젠택&슈리텔	朴炳造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春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 具本善	Actium 부회장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瀷	(주)종합전기 대표
成暻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方熙	(주)봉산주택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慶　周	광제사 주지
南秀淨	(주)씬앳푸드 대표
許格秀	(주)GS홀딩스 전무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청자회원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
金芝廷	(주)킨셉 대표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국회의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仁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口永宋	한식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金信卓	대성산업 전무
趙顯相	효성그룹 전무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李字鉉	OCI 부사장
金性完	스부디스 코리아(주)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호사
胡鍾一	효성흥업 회장
趙炳斎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眞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毅淳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柳徹浩
玄智浩	(주)화승 부회장
金南廷	양홍디엔아이 대표
金寧慈	(재)예올 이사장
金正宙	(주)NXC대표이사
梁泳會	(주)비상교육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丁惠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洪錫肇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洪淑珣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金承謙	(주)서룡통상 전무
朴世昌	금호타이어 전무
崔杜潤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海珍	NHN(주) 이사회의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貞	부남보갤러리 관장
洋園畫廊	
俉允碩	대한전선 부회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李敦禮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毅烈	제일보석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
朴知原	두산중공업 사장
曺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曺榮美	(주)KPE 전무
金世濡	동원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주)LIG홀딩스 대표이사
朴善正	GLMI 대표
金裕錫	행남자기 부사장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毅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漢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사장
梁榮幸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鉉	동원산업(주) 전무
許允秀	(주)알토라이팅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부관장
李幸旭	(주)대주기공 대표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룹 이사
朴言注	영은미술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李蓮花	경신금속 감사

책을 만들면서..

그렇게도 추웠던 찬바람
꽃바람이 다가오네
이제 제대로 되겠지!! (水)

창밖 햇볕은 따뜻해 보여도
바람은 아직 차다
초봄에 멋내면
얼어죽기 쉽다 했는데… (河)

不通!
이곳은 왜 이리
불통이 많은지…
무엇이 문제인까? (愛)

편집을 끝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
만족감으로 끝낼수는 없는건가,
언젠간 오겠지… (리)

매번 꽃샘추위에는
왜 이렇듯 익숙해지지 않는건지
참담한 소식에
새봄마저 주춤거리나보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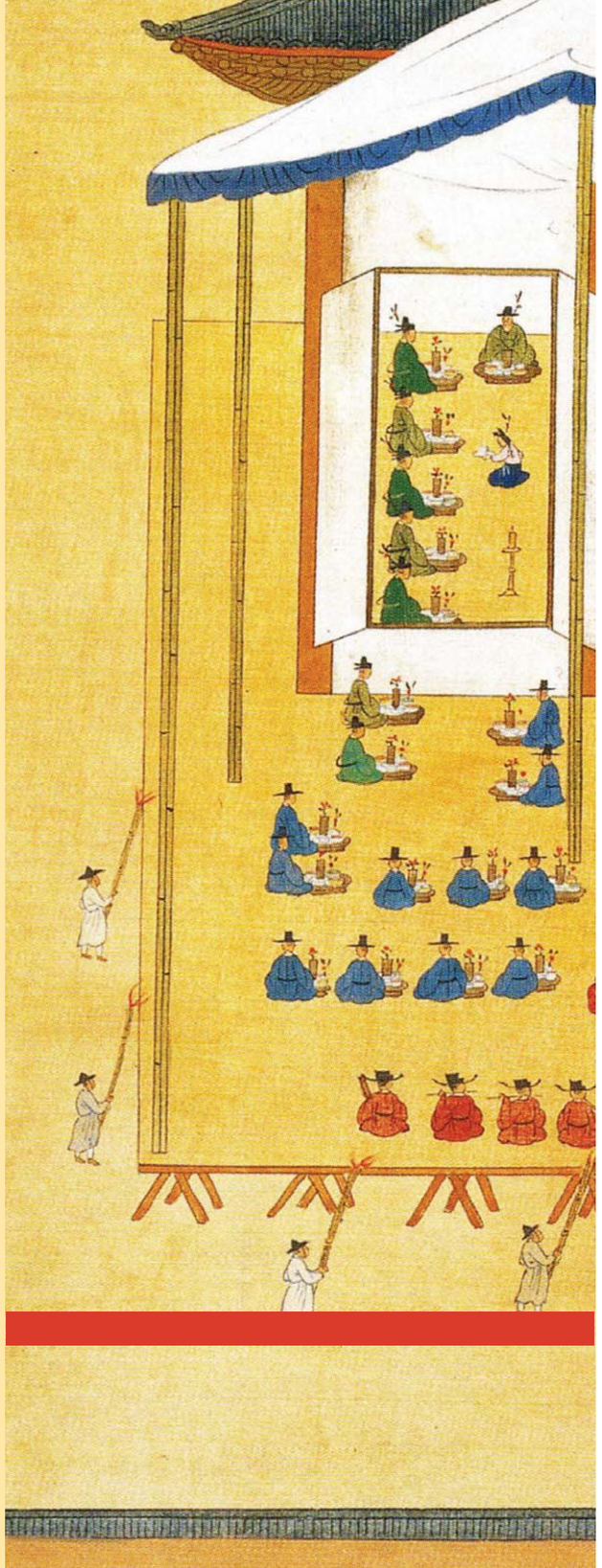
혹독한 겨울을 씩씩하게 견디냈으니
올 봄은 눈이지게 만끽해야겠다.
장하다!!!
변함없이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藝)

매일 매일
빛 좋은 날들로 부탁해. (延)

**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일 | 2011년 3월 17일
발 행 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창종
기　　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 정혜리 · 조애경 · 하영남 · 최예정
진　　행 | 서승연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